

3. 고통에 대한 이야기 // 2022. 08. 06.

난 고통을 잘 참는다. 고통은 간단히 참기 쉽다. 감각을 무시한 채로 얼굴에 표정 하나 띄우지 않은 채로 견디는 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지 않다. '피부가 뜯겨져 나가는 고통'과 '송곳으로 피부를 뚫는 듯한 고통' 등은 모두 '그냥' 고통으로 수렴한다. 고통에는 비유가 쓸모없다. 결국 모두 같다. 강도가 다를 뿐이다. 그러나 '피부가 뜯겨져 나가는 고통'과 '송곳으로 피부를 뚫는 듯한 고통' 중 무엇이 더 아픈지 아는 사람은 없다. 둘 다 경험해 본 사람이라도, 한쪽 손의 피부를 벗겨내는 동안 다른 쪽 손을 송곳으로 뚫어도, 그 고통을 정확히 짚 수는 없다. 고통은 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통은 참는 것이다. 참고 참아서 결국 고통이 닳을 때까지 참으면 그때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무 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그 때, 고통이 더이상 고통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이다. 그 시점의 고통은 몸의 일부가 되고 곧 내 자신이 된다.

짜증스러운 점을 꼽자면, 세상에는 고통이 아닌 고통 또한 존재한다. 온 몸으로 느낄 수 없는 고통과 그 형태가 없어 참을 수도 없는 고통이다. 내 살갓에 와닿는 것이 아닌, 심장에서부터 온 몸으로 뻗어져 나가 피부가 터지기 직전까지 안에서부터 나를 고문하는 고통이다. 몸 깊숙이 손가락을 쑤셔 넣어 그 요상한 고통을 끄집어 내어 두 손으로 뭉개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고통이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의 노래가 내 몸을 휘저을 때면 몸은 발버둥을 치고 머리는 미칠 것 같다며 그렇게 내지른다. '심리적 고통'으로 뭉뚱그리는 것은 마음에 들지 않았다. 1. 심리적인 것이 아니다, 온 몸을 휩쓴다. 2. 고통이 아니다, 하나의 시퍼런, 이미 터진 시한폭탄이다. 그렇기에 이 상태(상태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를 진단하려 남긴 수많은 인터넷의 검색기록은 하나의 잘못된 길에 걸어진 길이 되어 버렸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이런 상태의 존재에 대해 무지했다. 사람이 만든 허상이 왜 사람을 괴롭히는가, 만들었다면 없앨 수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라는 질문들을 블랙홀 같은 허공에 미친 듯이 던져 답을 얻으려 했던 날들도 지금은 지나는 듯했기에 이런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다.

이걸 나에게 준 사람을 생각해 보았다. 내 의지는 아니었다. 생각해 본 것이 아니라, 생각할 수 밖에 만들었다. 육체의 고통은 참을 수 있다며 평평거렸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하나 즈음은 있어야 한다는 법칙이라고 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으면 참아 보아라, 하며 던져진 것이 아닐까 싶었다. 이 법칙에 따르면 그 사람도 참을 수 없는 고통이 하나 즈음은 있겠지, 하며 위안 삼았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적어도 나 때문에는 그런 고통을 얻지 않을 것이다. 되려 해방감과 자유감을 온 몸으로 맞을 것이다. 그래서 난 그 사람에게 그 상태를 열어 줄 다른 '그 사람'을 찾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사람의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옆에 주욱 존재해 있었던 그 아이였다.

그 사람은 나에게 모질었다. 그 사람의 뼈죽거리는 모서리에 부딪칠 때마다 육체적 고통에 가까운 상태가 일었다. 참을 만했던 것 같다, 이진. 내 몸, 머리, 모든 것을 내어 주었다, 그래도. 그제

옳다고 믿었다. 너무 철저하게 믿어서 **그 사람**도 나에게 똑같이 내어 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그 사람** 또한 내 주었다. 다만, 받은 것은 내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내가 아니었다. 그 아이였다. **그 사람**은 받은 것이 나라고 믿었고, 나 또한 받은 것이 내 자신이라고 굳혀갔다. 그리고 그 굳힘이 절벽에서 떨어진 하나의 석고상마냥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입자들로 분해되는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내준 상대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그제서야 난 내가 내준 것들을 차츰차츰 주워 끌어모으려 했다. 너무 늦었었다. 내준 것들은 이미 처참히 널브러져 누군가 이미 조금씩 떼어 간듯, 다 모아도 1이 차지를 았았다. 그렇게 나는 몇십 조각 모자란 무언갈 갖게 되었고, ‘그 상태’가 머리 가장 깊은 하나의 점으로부터 휘몰아치기 시작해 나를 어딘가로 몰아세웠다.

허상에 불과하는 무채색의 조각들로 모자란 부분을 메꾸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일까. 아무리 공간이 채워져도 달을 목 뒤로 넘겨버린 그 상태는 전과 같은 밤을 보내는 것을 불가능케 했다. 밤 뿐만이었던가? 혼자임을 자각할 때마다 그 일이, 그 상태가, 저항할 수 없이 내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 왔다. 어쩌면 예상했던 것이 아닌가?

“...어쩌면”에서

“역시나...”까지

고통은 혼자 스며오지 않는다. 반드시 두려움과 함께였고, 불변의 법칙으로써 지켜져야 하는 사실이다. 그것이 곧 인간이 살아남은 방식이다. 고통에서 두려움을 도출해 내고 두려움에서 안전함을 얻어내고야 만다. 적절한 때의 도피로, 적당한 정도의 고통으로 진화했기에 인간과 고통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사람**의 이야기는 이 즈음에서 끝을 맺는다.

역시나는 고통이자 실망이자 다짐이다. 다시는 이 고통을 반복하지도 않겠다고 해 놓고선 또다시 어쩌면을 꿈꾸겠다는 다짐이다. 그러나 두 번째, 세 번째, 그 어쩌면은 진실에 가까워질 확률이 상승할 것이라는 망상 하의 다짐이다. 이 이상한 희망은 두려움에서 파생되었다. 두려움 없이 곱게 만들어진 희망은 없기 때문이다. 인간이 강력한 이유는 곧 희망이다. 희망이 없었던, 없는, 없을 상태에서 희망을 피어오르게 한다. 어쩌면 멍청한 특징이다. 그래서 결국 고통으로, 두려움으로 끝을 맺어 버리기에. 사실 끝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멍청하다.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다. 끊어낼 수 있었던 그 고통의 실오라기를 늘려 다음 고통의 바늘에 꿰는 것이 희망인데, 가위를 찾은 사람이 단 한명도 없다는 점이 우스운 것이다.

나 또한 그 무형의 전지전능의 가위를 갖지 못했다. 그렇기에 두 번째 고통의 바늘에 실을 꿰어 곧 뭉개어뜨려질 빈약하디 빈약한 털장갑을 짜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두 쪽 다 완성해 추운 겨울에 끼야지, 내 손을 따뜻하게 해 줘야지, 하며 부질없는 뜨개질을 이어 나갔다. 어쩌해야 빈틈없이 완벽하게 완성된 털장갑이 만들어질지도 모르면서, 죽을 때까지 완성할 일이 없음을 알면서, 그 쓸모없는 뇌리 한구석의 희망이란 녀석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뜨개질을 이어 나갔다. 현대 세상엔 정말 균형이라는게 있었던 것일까. 어느새 난 내가 끄찍이도 겪었던 상태를 희망을 준 그 사람에게

줘어주고 있었다, 아니, 떠밀고 있었다. 이걸 다시 두려움이다. 다시 그 상태를 겪게 할까 봐 한 자기방어다. 그제서야 한 가지를 깨달았다 - 두려움은 곧 가시의 형태를 띤다. 공격이 최고의 방어라는 말은 이쯤에서 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데, 그 가시는 무시무시할 만큼 빠죽 튀어나와 나를 보호하는 동시에 상대를 고통스럽게 하며 그 상대에게 가시의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어떻게 자라게 할지는 상대에게 달려 있으나 그 원천은 실상 나였던 것이다.

우리는 심장의 어느 심방 끝자락에서 한 가지 사실을 앞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숨기려 갖가지 노력을 더한다. 숨기는데 더하는 노력을 공부에 쏟는다면 권위있는 교수로 불릴 것이요, 사랑에 쏟는다면 애처가로 불릴 것이다.

그 사실은 다음과 같다:

고통 다음은 두려움, 두려움 다음은 희망, 희망 다음은 또다른 두려움, 또다른 두려움 다음은 고통과 두려움의 전파.... 전 인류는 그저 이 단계들 중 하나에 머물 뿐이다.

우리 모두 희망에 오래 머물 수 있기를,